



연변 조선족사회의 최근 변화: 사회인구학적 접근*

김 두 섭**

이 연구는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 내 조선족이 보인 사회인구학적 행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한중 국교수립 이후 조선족사회는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조선족의 인구행태와 인구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한족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 내 조선족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연변지역의 조선족사회는 최근 절대인구규모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시장경제의 도입 이후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통혼권과 거주지역이 확산되며, 조선족학교를 통한 민족교육이 급격히 위축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선족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문화정체성이 약화되고, 중국 내 소수민족사회로서의 위상도 점차 약화되는 과정에 있다. 연변 조선족사회의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위기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 연구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인구센서스를 통하여 드러난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조가 매우 불규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재검토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핵심단어: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인구, 조선족 소수민족사회, 저출산, 고령화, 민족 정체성

I. 머리말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역사적인 실험을 시작한 이래, 중국에서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중국인들의 경제활동, 의식구조뿐만 아니라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 혼인력 등의 인구현상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41-C00469). 이 연구에 사용된 1990년 및 2000년 중국인구센서스 자료와 아울러 각종 공식 및 비공식 자료를 제공해주신 中國 吉林省 統計局과 延邊朝鮮族自治州 統計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중국 내의 조선족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1992년 수립된 이후 조선족사회는 사회, 경제, 문화, 인구학적으로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 년간 중국 내 조선족이 보인 사회인구학적 행태의 변화를 설명하고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진단하는 것이다. 중국에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고 한국과 중국간의 접촉 및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조선족사회는 출산력 수준의 급격한 저하, 인구구조의 고령화, 활발한 인구이동과 거주지역의 확산, 직업구성의 변화, 통혼권의 확대, 조선족학교를 통한 민족교육의 위축 등으로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조선족의 인구행태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족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변지역의 조선족사회는 최근 절대인구규모의 감소추세를 보인다. 아울러 조선족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문화정체성이 약화되고,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사회로서의 위상도 점차 약화되는 과정에 있다.

중국 내 조선족은 주로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을 포함하는 동북지방에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다. 특히 길림성의 연변지역에는 조선족자치주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구는 2000년 현재 80.1만 명으로 중국 내 전체 조선족인구의 41.7%를 점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2000년 제5차 중국인구센서스 중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1990년 제4차 중국인구센서스 자료와 비교하여 인구행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연변 조선족사회의 인구학적 특성과 행태변화,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변조선족자치주 통계국의 각종 공식 및 비공식자료들도 활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구센서스를 통하여 드러난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조가 매우 불규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재검토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II. 조선족인구의 성장과 최근 변화

1. 조선족인구의 증가추세

중국에서는 1949년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다섯 번에 걸쳐 인구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중국인구는 1953년의 첫 번째 인구센서스에서 5.9억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후 47년 동안 중국의 전체인구는 2.1배로 증가하여 2000년 현재 12.6억 명을 넘어서고 있다. 조선족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112만

〈표 1〉 중국의 한족 및 조선족인구의 성장추세와 연평균증가율, 1953-2000

연도(월.일.)	인구(1,000명)			연평균증가율(%)		
	전체인구	한족	조선족	전체인구	한족	조선족
1953 (7.1.)	594,347	547,283	1,120	14.6	16.3	16.9
1964 (7.1.)	697,943	654,565	1,349	20.4	20.2	15.0
1982 (7.1.)	1,008,175	940,880	1,766	14.7	12.8	10.5
1990 (7.1.)	1,133,683	1,042,482	1,921	10.7	10.3	-0.1
2000 (11.1.)	1,265,830	1,159,400	1,920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1991: 6; 2002: 46).

명에서 192만 명으로 71.4%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에 0.19%이었던 전체인구에 대한 조선족인구의 구성비율은 2000년에 0.15%로 떨어졌다. 조선족 인구의 규모는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 중에서 14위에 해당된다. <표 1>에는 다섯 번의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중국인구, 한족 및 조선족의 인구추세와 이를 기초로 계산된 연평균증가율이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조선족인구는 1953-1964년의 기간에 연평균 16.9%의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중국 전체인구나 한족인구의 연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1964년 이후 조선족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 전체인구와 한족인구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초부터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시행하였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한 자녀정책’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자녀를 둘이나 셋까지 낳을 수 있는 우대정책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표 1>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소수민족의 인구증가율은 한족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조선족의 경우에는 다른 소수민족은 물론 한족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출산력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1990-2000년의 기간에는 중국 전체인구와 한족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이 각각 10.7%와 10.3%로 집계된 반면, 조선족인구는 약간이나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내의 조선족은 길림성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한반도의 동북부와 접경을 이루는 연변지역에 가장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으로의 조선족 이주 역사는 조선조 후기인 19세기 중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육진(함경도) 지

방의 계속되는 흉년으로 가난한 농민들이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오늘날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간도지방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간도지방의 조선족인구는 1860년대에 이미 7.7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조선족의 거주지는 만주 전역으로 점차 확산되었다(고승제, 1973; 崔昌來 外, 1989, 1992; 윤호, 1993).

연변지역의 조선족인구는 1910-193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반도에서는 이 시기에 사망력의 저하로 인구증가의 속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농촌의 경제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었고, 그 결과는 만주로의 대규모 이농현상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농촌을 떠나 연변지역을 비롯하여 만주로 이주한 농민들은 초기에는 함경도 출신이 많았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경상도 지방의 이농민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1932년의 만주사변 이후에는 일본의 대륙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 만주로의 집단이주도 많이 이루어졌다(김두섭, 1996; 권태환·김두섭, 2002). 일제시대에 연변을 비롯하여 만주로 이주한 우리 민족의 대부분은 광복 후에도 한반도로 귀환하지 않고 현지에 정착하였다.¹⁾

연변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지 3년 후인 1952년에 조선족자치주로 지정되었다. 총면적은 42,700Km²로서 한국(남한) 면적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친다. 이 지역의 조선족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며 중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 분야에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다(한상복·권태환, 1993). <표 2>에는 다섯 번의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인구 추세가 민족별로 제시되어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전체인구는 1953년의 92.6만 명에서 약 2.4배로 증가하여 2000년 현재 221.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즉, 47년 동안 연평균 18.4%의 속도로 증가한 셈이다. <표 2>에서 1990-2000년 기간에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5.9%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중국 전체인구의 연평균증가율 10.7%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인구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조선족이 한족보다 인구의 증가속도가 두드러지게 더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1953년 연변 전체인구의 60.2%를 점유하던 조선족인구의 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에는 3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2000년의 기간에는

1) 광복 이후 만주로부터 남한지역으로 귀환한 동포의 누계규모는 1947년 말 현재 34.4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이주한 인구의 과반수가 광복 이후 귀국한 것과 대비된다.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족인구의 규모는 1949년 현재 103.1만 명으로 추정되었다(Kim, 1998).

〈표 2〉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민족 및 성별 인구, 1953-2000

	1953년 인구 (7월 1일)	1964년 인구 (7월 1일)	1982년 인구 (7월 1일)	1990년 인구 (7월 1일)	2000년 인구 (11월 1일)	연평균 인구증가율(%) (1990-2000)
조선족						
남자	-	-	-	408,158	398,858	-2.2
여자	-	-	-	414,643	402,352	-2.9
합계	557,292	623,136	754,567	822,801	801,210	-2.6
한족						
남자	-	-	-	611,475	700,186	13.1
여자	-	-	-	574,417	640,989	10.6
합계	346,427	643,855	1,074,240	1,187,262	1,341,175	11.8
전체인구						
남자	488,739	669,914	950,004	1,056,449	1,134,339	6.9
여자	437,468	624,715	921,508	1,023,453	1,075,307	4.8
합계	926,207	1,294,629	1,871,512	2,079,902	2,209,646	5.9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1991: 4; 2002: 44).

한족인구가 15.4만 명이 증가한 반면, 조선족인구는 오히려 2.2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기간의 한족과 조선족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을 계산해보면 각각 11.8%와 -2.6%가 된다.

2. 저출산력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조선족인구의 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조선족의 출산력 수준이 다른 민족보다 현저하게 낮다는데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표 3>을 보면, 1989년의 조선족 출생아수는 13,324명이었으나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의 1년 동안 조선족의 출생아수는 3,537명에 불과하여, 무려 73.4%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²⁾ 이에 비해 한족의 출생아수는 같은 기간에 57.5%가 감소하였다. 조선족의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은 1999-2000년의 기간에 4.4%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한족의 7.1%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1989년의 조선족 조출생률 16.2%의 2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

2) 중국의 인구센서스가 지닌 특징 중의 하나는 센서스를 통하여 동태통계정보들이 수집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199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기준시점 이전 18개월(1989년 1월 - 1990년 6월) 동안, 그리고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기준시점 이전 12개월(1999년 11월 - 2000년 10월) 동안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정보들이 수집되었다.

한 낮은 수준의 조출생률은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참고로,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력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조출생률은 2002년 현재 10.3%로 집계된 바 있다 (통계청, 2003).

물론 위에서 살펴본 조선족의 출생아수와 조출생률은 9.33%의 표본자료로부터 추정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조출생률이 인구의 연령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표라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연변조선족자치주 통계국이 어머니의 민족 및 연령별 출생아수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산력 수준의 가장 정확한 지표라 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을 추정하기는 어렵다.³⁾ 그 대신 1990년과 2000년 중국인구센서스에 15-64세 부녀 1인당 평균출생자녀수와 평균생존자녀수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간접적인 파악은 가능하다.

<표 3>을 보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2000년 평균출생자녀수와 평균생존자녀수가 각각 1.06명과 1.05명으로 제시되어 있다. 조선족의 평균출생자녀수는 1990년의 1.84명에서 2000년에는 1.01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평균생존자녀수도 같은 기간에 1.70명에서 0.99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 (州都)인 연길 (延吉)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평균출생자녀수와 평균생존자녀수는 2000년 현재 각각 0.86명에 불과하다. <표 3>에서 조선족의 평균출생자녀수와 평균생존자녀수는 한족의 그것에 비해 뚜렷하게 작다. 그러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한족 역시 중국 전체의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0-2000년의 기간에 평균출생자녀수와 평균생존자녀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저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avis (1963)는 출산을 제한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상대적인 박탈감의 공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연변 조선족의 경우에도, 시장경제의 도입과 한중교류의 활성화 이후 생활수준이 남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된다는 공포감과 사회경제적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중국 내의 도시지역이나 한국으로의 노동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용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하여 저출산 지향의 규범, 가치관 및 태도가 형성되고 출산력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⁴⁾ 아울러 젊은 여성들의 대

3) 그 동안 조선족인구의 합계출산율에 관해서 다양한 추정작업들이 이루어졌으나 그 추정의 정확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Han Jin-Qing 등은 중국 내 조선족의 합계출산율을 1971년 3.6, 1974년 2.0, 1981년 1.8로 추정하였다 (Han et al., 1988). 양옥금 (2001)은 연변 조선족의 합계출산율이 1974년 1.74, 1991년 1.81이었으며, 1999년에 1.1로 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연변 조선족의 합계출산율을 1971년 4.42, 1974년 1.89, 1986년 1.85, 1989년 1.56으로 추정한 연구도 있다 (윤진주·량학민, 2001; 강영덕, 2001). 한편, 권태환 (2003)은 중국 내 조선족인구의 현재 합계출산율을 1.1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표 3>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민족별 출산력 지표, 1989-2000

	조선족			한족			전체인구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출생아수									
1989. 1. 1. - 1989. 12. 31.	6,747	6,577	13,324	11,512	10,860	22,372	19,253	18,414	37,667
1999. 11. 1. - 2000. 10. 31.**	1,801	1,736	3,537	5,091	4,427	9,518	7,170	6,313	13,483
인구 1천 명당 출생률(%)									
1989. 1. 1. - 1989. 12. 31.*	16.5	15.9	16.2	18.8	18.9	18.8	18.2	18.0	18.1
1999. 11. 1. - 2000. 10. 31.**	4.5	4.3	4.4	7.3	6.9	7.1	6.3	5.9	6.1
15-64세 부녀 1인당 평균출생자녀수									
1990. 7. 1.	-	-	1.84	-	-	1.93	-	-	1.89
2000. 11. 1.	-	-	1.01	-	-	1.09	-	-	1.06
15-64세 부녀 1인당 평균생존자녀수									
1990. 7. 1.	-	-	1.70	-	-	1.90	-	-	1.80
2000. 11. 1.	-	-	0.99	-	-	1.08	-	-	1.05

주: * 1990년 센서스 인구를 기준인구로 하여 출생률을 계산하였음.

** 2000년 센서스 인구를 기준인구로 하여 출생률을 계산하였음. 그리고 출생아수 및 출생률의 계산은 9.33%의 표본자료로부터 계산되었음.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1991: 56-65, 174-179; 2002: 90-101, 1358-1359).

규모 혼인이동으로 인하여 연변지역에서 혼인적령인구의 남녀균형이 왜곡되었다는 사실도 출산력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사망력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의료환경은 중국 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속한다 (Anderson et al., 1997; 김두섭, 2000). 사망력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지난 10년간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에 제시된 사망력 지표들을 살펴보면, 1989년에 비해 1999년 11월부터 1년 동안 조선족의 사망자수는 3.8%가 감소한 반면, 한족의 사망자수는 오히려 1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의 조사망률 (crude death rate)은 1999-2000년의 기간에 6.9%로 추정되며, 이는 한족의 5.1%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4) Friedlander(1969)와 Mosher(1980)는 인구의 압력이 심한 사회에서 국의 또는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동이 출산력의 저하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연변지역의 경우, 1990년대 초에 인구압력이 높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부분의 전출이동이 가족단위가 아니라 가족구성원 단신이동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과는 맥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조사망률은 2002년 현재 5.1%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03).

조선족이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것은 <표 3>에 제시된 평균 출생자녀수와 평균생존자녀수를 분석해 보아도 확인된다. 특히 50대 중반 이상의 고연령층, 저학력자, 농가, 농촌호구등록자 등의 집단에서 조선족의 자녀사망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고등교육을 받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연령층의 조선족에서는 자녀사망률이 한족에 비해 뚜렷한 편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두섭, 1996).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족 남자의 사망률은 1999-2000년의 기간에 8.1%로 조선족 여자(5.7%)나 한족 남자(6.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처럼 특히 조선족 남자의 사망률 수준이 현저하게 높은 것은 김치 등 짠 전통음식과 과도한 음주 및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n and Tong, 1997). 특히 조선족의 고혈압 발병률은 한족을 포함한 57개 민족 중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균수준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흑룡강신문, 2001).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사망률 수준은 성별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뚜렷한 편차를 보인다. 지난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로부터 추정된 조사망률은 주도인 연길시 5.0%로 가장 낮고, 외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훈춘시, 용정시와 화룡시의 사망률이 각각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민족과 성별에 관계 없이 그러하다. 예를 들면, 연길시에 거주하는 한족 여자의 조사망률은 4.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훈춘시와 화룡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남자의 사망률은 각각 9.3%로 추정되었다.

<표 4>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민족별 사망률 지표, 1989-2000

	조선족			한족			전체인구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사망자수									
1989. 1. 1. - 1989. 12. 31.	3,385	2,370	5,755	3,737	2,351	6,088	7,326	4,839	12,165
1999. 11. 1. - 2000. 10. 31.	3,234	2,304	5,538	4,166	2,709	6,875	7,594	5,132	12,726
인구 1천 명당 사망률(%)									
1989. 1. 1. - 1989. 12. 31.*	8.3	5.7	7.0	6.1	4.1	5.1	6.9	4.7	5.8
1999. 11. 1. - 2000. 10. 31.**	8.1	5.7	6.9	6.0	4.2	5.1	6.7	4.8	5.8

주: * 1990년 센서스 인구를 기준인구로 하여 사망률을 계산하였음.

** 2000년 센서스 인구를 기준인구로 하여 사망률을 계산하였음.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1991: 56-65, 180; 2002: 90-101, 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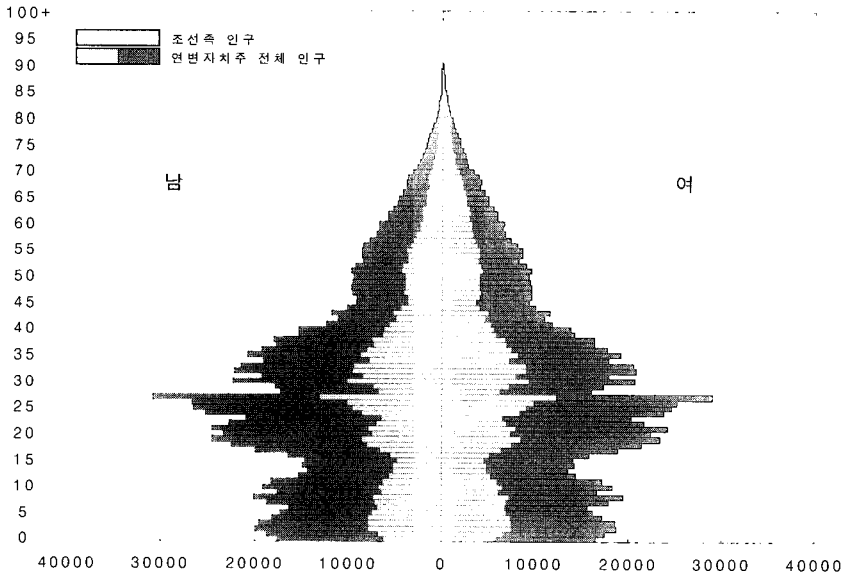
4. 인구구조의 변화

지난 10여 년간 연변조선족자치주 인구의 연령구조는 매우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연변자치주의 조선족인구와 전체인구의 성 및 연령별 구조를 보여준다. 이 그림들은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1990년의 인구피라미드는 연령에 따라 인구규모가 심한 기복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에 이르는 연령집단에서 인구규모가 매우 불규칙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2>의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에 이르는 연령집단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따라서 센서스 자료의 질에 기인하기보다는 대약진운동(1958-1959)을 전후한 사회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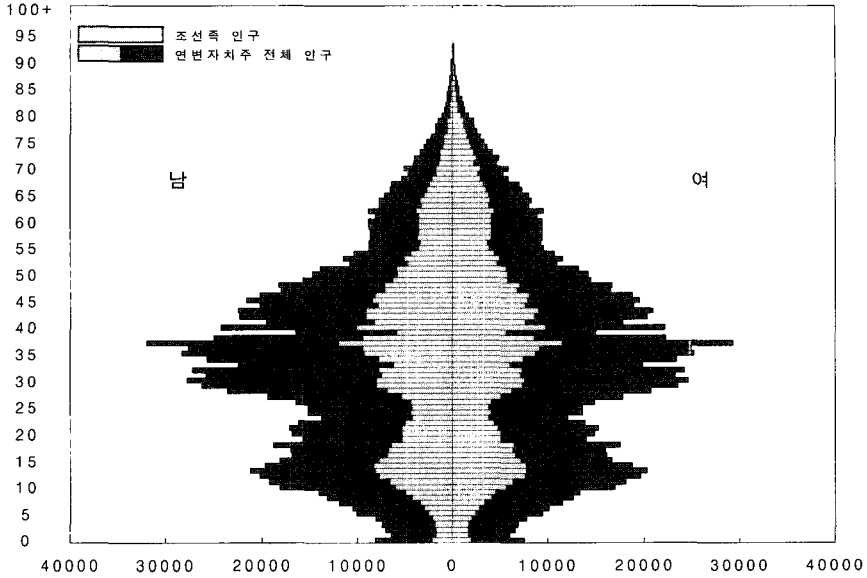
<그림 1>에서 20대 후반부터 1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낮아질수록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은 문화혁명(1966-1976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림 1> 연변자치주 조선족인구와 전체인구, 1990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1991: 56-71).

<그림 2> 연변자치주 조선족인구와 전체인구, 2000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2002: 273-275, 348-350).

판단된다.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던 이 기간에는 특히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출산력이 더욱 심하게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연변자치주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도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그림 1>에서는 문화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 연변자치주의 출생아수가 민족의 구분 없이 조금씩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이후 ‘한 자녀정책’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출생아수의 증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자녀를 둘이나 셋까지 낳을 수 있는 우대정책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출산력 수준은 다른 소수민족은 물론 한족에 비해서 월등히 낮게 유지되어 왔다.

단지 10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두 인구센서스의 자료가 연령분포에 있어서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림 2>에서 2000년 연변자치주의 전체인구와 조선족인구는 매우 기형적인 연령구조를 보여준다. 우선, 10대 초반부터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 시장경제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한국과 중국간의 교류가 급증하면서 연변에 거주

하는 조선족의 출산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저하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연변 자치주 조선족인구와 전체인구의 이처럼 특이한 연령구조는 시(市), 진(鎮), 현(縣) 인구별로 각기 따로 작성해보아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해보면, 연변자치주 인구의 연령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인구의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표 5>에는 연변 조선족인구와 한국인구 연령구조의 고령화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연변 조선족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율은 1990년에 5.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7.8%로 월등히 높아졌다. 즉 연변지역의 조선족인구는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다.

지난 2000년 현재 한국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7.2%이었음을 감안하면, 연변 조선족인구의 고령화추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보다도 앞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에서 조선족인구와 한국인구의 중위연령, 고령화 지수, 노년부양인구비를 비교해보면, 1990년에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에 이르면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조가 한국인구보다 훨씬 더 고령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5년간의 출산력 수준에 가장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는 고령화 지수의 경우에는 조선족인구와 한국인구가 각각 49.6과 34.3으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연변 조선족인구와 한국인구 연령구조의 고령화 추세, 1990-2000

	연변 조선족인구		한국인구	
	1990	2000	1990	2000
인구 (천 명)	823	801	42,869	47,008
65세 이상 인구 (%)	5.1	7.8	5.1	7.2
중위연령	27.7	36.0	27.0	31.8
고령화 지수	21.2	49.6	20.0	34.3
노년부양인구비	7.2	10.2	7.4	10.1

주: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노년부양인구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1991: 56-71; 2002: 348-350).

인구상황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변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여 년간 연변 조선족인구의 사회인구학적 변화추세는 조선족사회가 해체의 초기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만약 앞으로 연변의 조선족사회에서 매우 낮은 출산력으로 인한 절대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이와 같은 추세의 고령화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소수민족사회로서의 위상 약화는 물론, 조선족자치주로서의 사회인구학적 기반마저도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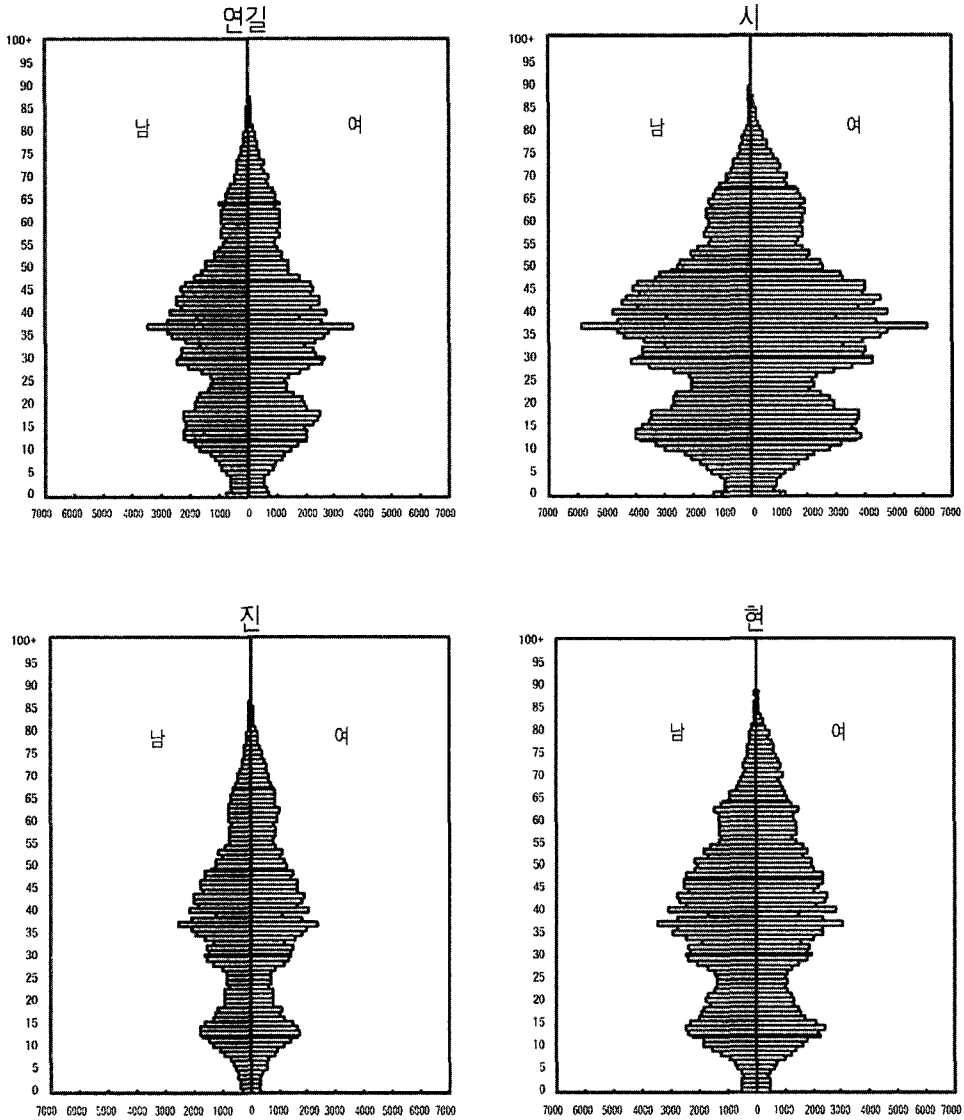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연변자치주 조선족인구의 성별구조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90년과 2000년의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자료를 보면, 남녀의 차별사망률로 인하여 50대 이후 인구의 성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남녀 인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남아선호로 인한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문제도 1990년 이후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Kim, 1997). 참고로 2000년 현재 조선족의 0세와 1세 인구의 성비는 각각 107.7과 105.5이었으며, 이들은 정상적인 출생성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다른 지역이나 한국으로의 노동이동 그리고 조선족 여성의 결혼을 통한 한국으로의 이주는 청장년층 인구의 성별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변 조선족인구의 노동이동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선택성과 통혼권 확장이 성별구조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는 뒤에서 이루어진다.

5. 사회인구학적 구조의 지역별 편차

연변조선족자치주는 2000년 현재 6개의 시와 2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인구 221만 명 중 36.3%에 해당하는 80.1만 명이 조선족이다. 조선족의 구성비율은 1990년의 39.5%에 비해 3.2% 포인트가 낮아진 것이다. 조선족의 거주지는 한반도와의 국경에 비교적 인접해 있는 도회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연변 조선족인구의 49.0%에 해당되는 39.3만 명이 시(市)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주도(自治州都)인 연길에만 23.1만 명이 밀집되어 있다. 진(鎭)과 현(縣) 지역에는 연변 조선족인구의 20.7%와 30.3%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그림 2>에서 살펴본 바 있는 연변 조선족인구의 성 및 연령구조를 지역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3>과 <표 6>에는 연길시, 시(연길시 포함), 진, 현에 거주하는 조선족인구의 성 및 연령구조가 그림과 통계자료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연변 조선족

<그림 3> 연변자치주 연길, 시, 진, 현의 조선족인구, 2000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2002: 348-372).

인구의 성비는 99.1로 남녀인구가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촌으로 갈수록 남자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시지역의 성비 95.3에 비해 농촌지역의 성비는 105.7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만약 인구가동이 특정 성에 선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남녀간의 차별사망력으로 인하여 연령의 상승과 함께 성비가 낮아지기 마련이다. <그림 3>에 제시된 성별구성을 보면, 연길시와 시 지역은 10대 중반까지 남자인구가 더 많고 그 후의 연령집단에서는 여자인구가 더 많다. 이에 비해, 약간의 예외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진과 현 지역에서는 50대 초중반에 이르기까지 남자인구가 더 많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현 지역의 혼인적령인구에서 두드러진다. 현 지역의 20대 후반 연령집단들의 경우에는, 성비가 모두 130을 상회할 정도로 여자인구가 현저하게 적다. 이는 경제활동 또는 혼인을 위해 중국 내의 도시지역이나 한국으로 이동한 농촌의 젊은 여성들이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조선족 마을인 용정시 백금향의 경우, 이 마을의 총각은 40여명에 이르나 미혼 여성은 단 한명도 남아있지 않다. 모두 한국의 농촌총각과 결혼하거나 돈벌러 빠져나가고, 미혼 여성은 소학생만 남은 실정이다.

<그림 3>에 제시된 네 개의 그림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연령구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단지 연길시와 시, 현 지역은 2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에 이르는 연령집단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진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진 지역은 이 연령집단 인구의 절대적인 크기나 전체인구에 대한 구성비율이 현저하게 작다. <표 6>에 제시된 각종 고령화 관련지표들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연령구조가 고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현 지역의 중위연령은 37.1세, 고령화 지수는 57.2로 시 지역의 평균값 34.8세와 43.4보다 월등히 높다. 연변에서 가장 큰 도시인 연길시는 모든 고령화 관련지표들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소년부양인구비와 총부양인구비는 진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진 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고, 0-14세 연령집단의 구성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표 7>을 보면, 조선족의 거주지는 연변자치주 내에서도 한반도와의 국경에 비교적 인접해 있는 용정시, 연길시, 화룡시에 밀집해 있다. 이들 지역에서 전체인구에 대한 조선족인구의 구성비율은 절반이 넘는다. 반면, 왕청현과 안도현의 조선족 구성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돈화시의 경우에는 그 구성비율이 2000년 현재 4.2%에 불과하다. 조선족인구의 구성비율은 1990년 이래 모든 지역에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훈춘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표 6〉 연변 조선족인구의 지역별 성 및 연령구조 지표, 2000

	연길	시	진	현	전체인구
인구	231,280	392,625	165,693	242,892	801,210
성비	95.5	95.3	99.2	105.7	99.1
중위연령	34.3	34.8	36.8	37.1	36.0
65세 이상 인구 (%)	6.6	7.0	8.6	8.5	7.8
고령화 지수	42.7	43.4	54.0	57.2	49.6
소년부양인구비	20.0	20.8	21.1	19.4	20.5
노년부양인구비	8.5	9.0	11.4	11.1	10.2
총부양인구비	28.5	29.9	32.5	30.6	30.6

주: 고령화지수= $\frac{65\text{세 이상 인구}}{0-14\text{세 인구}} \times 100$.
 소년부양인구비= $\frac{0-14\text{세 인구}}{15-64\text{세 인구}} \times 100$.
 노년부양인구비= $\frac{65\text{세 이상 인구}}{15-64\text{세 인구}} \times 100$.
 총부양인구비= $\frac{[(0-14\text{세 인구}) + (65\text{세 이상 인구})]}{15-64\text{세 인구}} \times 100$.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2002: 348-372).

〈표 7〉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역별 인구지표, 2000-2001

지역	2000년		2001년						
	전체인구	조선족 비율(%)	조출생률 (%)	조사망률 (%)	인구이동				
					전입자	(성외 전입자)	전출자	(성외 전출자)	순이동
연변자치주	2,209,646	(36.3)	6.0	5.3	53,144	(8,381)	50,790	(8,635)	2,354
연길시	432,339	(53.5)	7.2	4.3	11,375	(1,798)	5,825	(1,948)	5,550
도문시	132,368	(52.5)	4.4	6.8	3,015	(970)	1,949	(449)	1,066
돈화시	480,834	(4.2)	7.0	4.7	11,026	(1,594)	11,654	(1,938)	-628
훈춘시	211,091	(36.9)	6.0	5.7	10,091	(1,004)	9,373	(890)	718
용정시	261,551	(65.4)	4.1	6.7	6,535	(672)	8,236	(656)	-1,701
화룡시	215,266	(52.3)	4.9	6.7	4,673	(1,037)	5,770	(1,037)	-1,097
왕청현	255,882	(28.7)	5.8	4.8	2,394	(532)	3,693	(773)	-1,299
안도현	220,315	(20.6)	6.4	4.8	4,035	(774)	4,290	(944)	-255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2002: 51-56, 99-101); 延邊統計局 (2002: 82).

여기서 1990-2000년의 기간 연변지역의 인구변화를 지역별로 보면, 우선 자치주도인 연길이 29.3만 명에서 43.2만 명으로 연평균 37.6%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구가 증가한 곳은 대외개방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변경경제합작구가 설립된 훈춘시이다. 반면, 조선족의 구성비율이 높은 용정시와 화룡시에서는 인구규모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용정시의 경우에는 1993년 조선족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이래 전체인구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족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돈화시는 인구규모가 자치주도인 연길보다도 크며, 1990-2000년의 기간에 별다른 인구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표 7>에는 2001년 『延邊統計年鑒』에서 발췌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이 제시되어 있다.⁵⁾ 이 표에서 특이한 것은 연길, 돈화, 훈춘 등 큰 도시의 조출생률이 뚜렷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용정, 도문, 화룡 등의 도시가 가장 낮은 수준의 조출생률을 보인다. 예를 들어, 용정의 조출생률 4.1%는 연길의 조출생률 7.2%의 57%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조사망률의 지역별 편차는 조출생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경향을 보인다. 조사망률은 연길, 돈화와 같은 큰 도시에서 낮고,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도문, 용정과 화룡에서 가장 높다.

이동으로 인한 연변의 인구증가는 2001년 한 해 동안 2,354명에 이른다. 전입자 5.3만 명 중에서 길림성 밖으로부터의 전입자가 15.8%에 달한다. 한편, 중국 내 다른 지역과 한국 등 외국으로의 전출자는 8,635명으로 전체 전출자의 17.0%를 구성하고 있다. 순이동으로 인한 인구증가는 연길시가 5,55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도문시와 변경경제합작구가 설립된 훈춘시도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았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들은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더 많아 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이루어졌다. 특히 용정시의 경우에는 낮은 출산력, 높은 사망력과 아울러 인접한 연길시로의 이동자가 많아 1990년에 비해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표 7>에 제시된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자료들이 상당 수준 과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호구(戶口)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가구구성원 일부가 이동하였거나 불법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표 7>에 제시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은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된 값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기준시점이 각각 2000년과 2001년으로 다르다는 점 이외에도, 2000년의 출산력 지표들이 9.33%의 센서스 표본자료에 의거하여 추정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Ⅲ. 조선족인구의 성 및 연령구조에 대한 검토

1. 성비와 연령비

그 동안 1990년 중국인구센서스 자료의 불완전성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Johansson and Nygren, 1991; Jiang et al., 1994; Tu and Liang, 1994; Anderson and Liu, 1996). 그러나 2000년 중국인구센서스는 최근에 집계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자료의 질이나 신뢰성에 관해서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변자치주 조선족인구가 연령에 따른 인구규모의 기복이 심하고 매우 기형적인 연령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인구센서스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우선,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성 및 연령구조의 특징과 정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성비(sex ratio)와 연령비(age ratio)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 연변 조선족인구의 성비는 대체로 10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며 진폭을 보이다가 50대 초반 이후부터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추세는 50대 초반 이후 남자의 사망률 수준이 여자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그림 5>에 제시된 2000년 연령별 성비의 진폭이 1990년 <그림 4>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심해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성비가 20-29세에 이르는 연령집단에서 인접 연령집단보다 조금씩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199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선족인구의 24-44세 연령집단에서 비슷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향들을 인구집계상의 착오나 실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국 내 다른 지역이나 한국으로의 노동이동에 있어서의 성의 선택성, 그리고 1990년대 초반 이래 조선족 여성의 결혼을 통한 한국으로의 이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연령비는 인구센서스에서 연령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그릇된 응답이나 불확실한 응답에서 비롯되는 연령편중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아울러 특정 연령집단의 과소집계(under-count)와 과다집계(over-count)를 파악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연령비란, 예를 들어 10세의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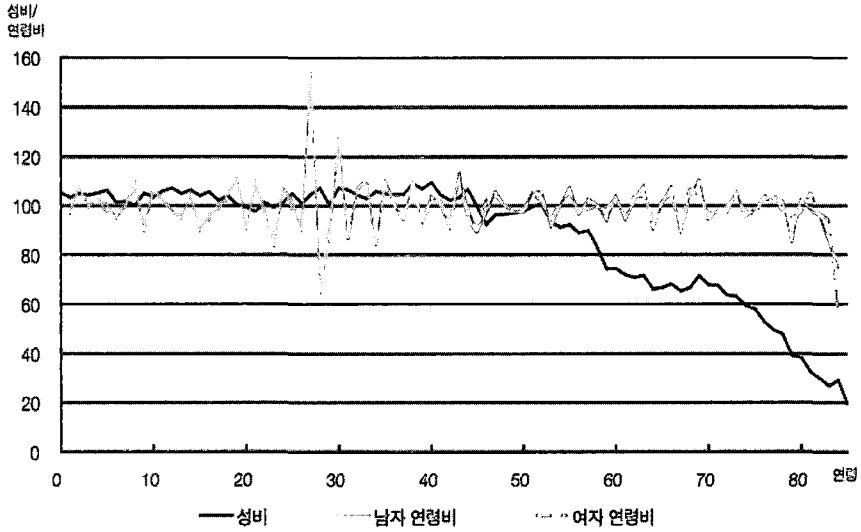
자인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집계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10세의 인접 연령집단인 9세와 11세의 인구를 합한 숫자의 절반과 동일한가를 저울질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비가 100.0의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그만큼 연령편중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특정 연령과 인접한 연령집단 사이에 집계오차(coverage error)의 편차가 큰 경우에도 연령비는 100.0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림 4>와 <그림 5>에 제시된 남자 인구나 여자 인구의 연령비는 거의 일치된 양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그림 5>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연령비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인구의 경우에 모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39세 남녀 인구의 연령비는 각각 59.3과 62.0이며, 반면에 40세 남녀인구의 경우에는 연령비가 각각 143.6과 146.0 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연령비의 이러한 불규칙성이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특정 연령집단의 과소집계와 과다집계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림 4>에 제시된 199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서도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똑같은 형태의 연령비 기복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연령집단의 출생 시기는 문화혁명(1966-1976년)의 시기와 중복된다. 아마도 당시의 불안한 정치사회상황에서 조선족의 출산력 수준이 커다란 진폭을 이루며 변화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이 시기 출생아들의 보고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변 조선족인구의 성 및 연령구조를 좀더 상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마이어즈 지수(Myer's index)와 연령-성 정확도 지수(UN age-sex accuracy index)를 산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⁶⁾ 우선, 2000년 조선족인구의 연령자료에서 마이어즈 지수는 1.80 으로 산출되었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지수는 특정 끝자리 수의 연령에 대한 선호현상이 별로 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UN이 개발한 연령-성 정확도 지수는 44.0 으로 계산되었다. 이 지수는 연령 보고의 오류측정, 특정한 성이나 연령의 인구가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포함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이 지수의 값이 20 이하이면 연령과 성의 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그리고 20-40과 40 이상의 값은 각각 '부정확'과 '매우 부정확'한 것으로 간주된다(Shryock and Siegel, 1976: 126). 따라서 UN이 제시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연변 조선족인구의 자료는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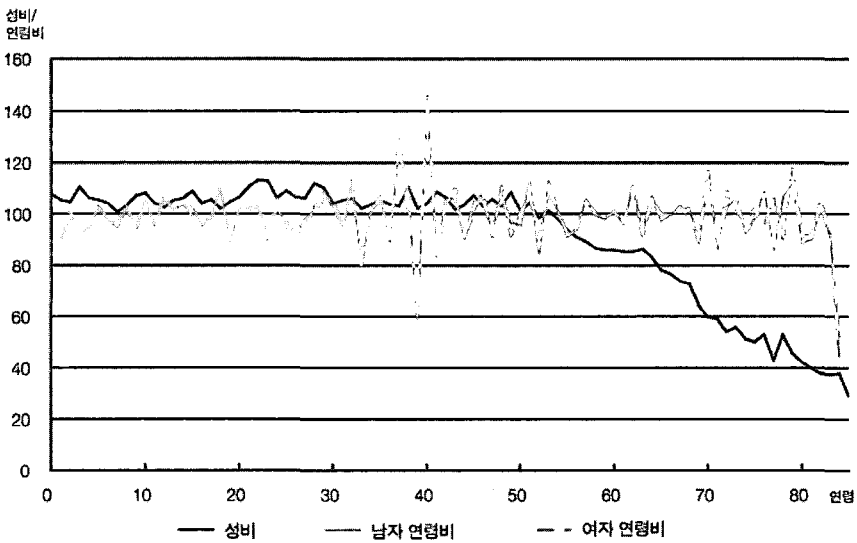
6) 마이어즈 지수(Myer's index)와 연령-성 정확도 지수(UN age-sex accuracy index)를 산출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Shryock and Siegel (1976: 116-118, 124-127) 또는 김두섭 (2001)을 참조할 것.

〈그림 4〉 연변자치주 조선족인구의 성비와 연령비, 1990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1991: 56-71).

〈그림 5〉 연변자치주 조선족인구의 성비와 연령비, 2000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2002: 348-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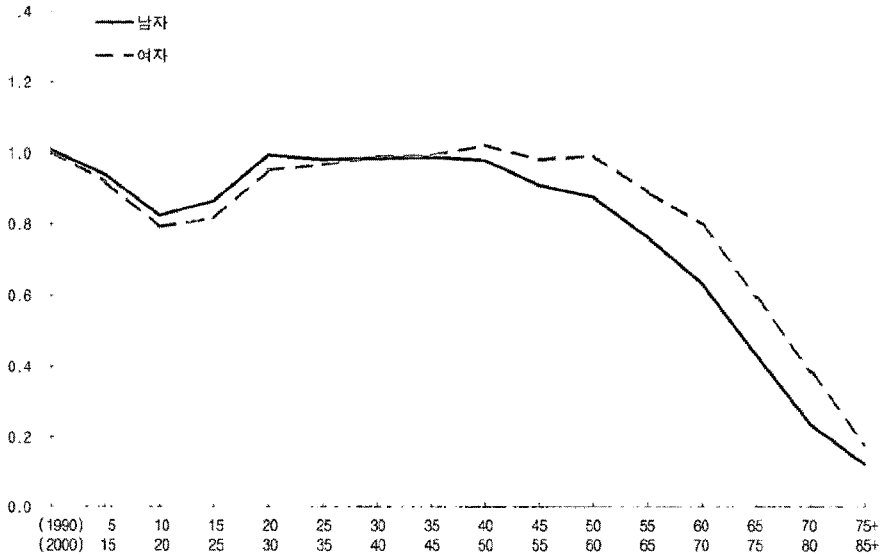
과 성에 관한 한 매우 부정확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처럼 높은 수준의 연령-성 정확도 지수는 연령보고의 오류나 측정의 부정확성보다는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의 연령구조가 매우 불규칙적이라는 사실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2. 생존율

생존율 (survival rate)은 어떤 한 연령집단이 특정 기간이 지난 후까지 살아남게 되는 확률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1990년의 20-24세의 인구집단은 10년 후인 2000년에는 30-34세에 이르게 되고, 그 사이에 이 코호트에 인구이동이 없었다면 전자에 대한 후자의 비율이 바로 생존율이 된다. 만약 인구이동이 많았다면 두 개의 센서스 연령자료에서 얻은 센서스 생존율 (census survival rate)은 해당 기간의 사망력과 인구이동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인구의 연령별 사망률이 가용하다면 순인구이동자의 규모를 계산할 수도 있다. 이때 사망력의 지표로는 주로 생명표가 이용된다. 그런데 연변 조선족인구의 경우에는 연령구조에 문제가 있고 믿을만한 생명표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센서스 생존율의 경향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6>에는 1990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연변 조선족인구의 연령 및 성별 센서스 생존율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6>을 보면, 2000년 현재 30세 미만의 연령집단에서 생존율이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난다. 이는 남녀 인구에서 모두 그러하다. 그리고 2000년 현재 40세 미만의 연령집단에서는 여자의 생존율이, 그리고 40세 이후에는 남자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청장년층의 경우, 중국 내 다른 지역 및 한국으로의 노동이동이 여성에 보다 선택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조선족 여성의 결혼을 통한 한국으로의 이주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40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 남자의 생존율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은 주로 남녀의 차별사망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연변자치주 조선족인구의 연령 및 성별 센서스 생잔율, 1990-2000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1991: 56-71; 2002: 273-275, 348-350).

IV. 조선족인구의 사회경제적 변화

1. 교육수준의 변화와 민족교육의 위축

중국 내 조선족의 교육수준이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표 8>을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고등 및 대학교육을 받은 조선족인구의 구성비율이 한족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초등교육을 받은 조선족인구의 구성비율은 한족보다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 지난 1990년 이후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연변자치주 인구의 교육수준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조선족과 한족의 남녀 인구 모두에게서 관찰된다. 특히 조선족 남자 인구의 경우에는 2000년 현재 10.6%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조선족과 한족, 남자 인구와 여자 인구간의 교육수준의 격차는 1990년과 거의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연변조선족자치주 6세 이상 인구의 민족 및 성별 교육수준의 구성비율,
1990-2000

	조선족				한족			
	1990		2000		1990		2000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교육수준								
소학	21.7	26.6	16.1	20.9	34.9	37.8	27.7	31.6
초중	40.5	40.4	43.3	43.2	39.6	37.2	45.2	41.7
고중	26.0	24.9	24.7	23.2	19.0	19.6	17.3	17.1
중전(中傳)	4.4	4.9	5.3	6.3	3.2	3.3	3.9	4.8
대학 이상	7.4	3.2	10.6	6.5	3.4	2.0	5.9	4.8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1991: 130-131; 2002: 614-672).

그 동안 조선족의 높은 교육열은 민족 고유의 교육을 발전시켜왔다. 조선족은 이민 초기부터 조선족 집거지에 각종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 이후에는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민족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선족 민족향에 조선족 소학교가 세워졌으며, 조선족 지역 중심에는 조선족 중학교가 설립되었다. 조선족 민족학교는 연길의 연변대학까지 이어져 하나의 완결된 민족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권태환·박광성, 2003a).

그 동안 조선족학교를 통한 민족교육은 조선족의 집거를 촉진시키고, 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화 및 조선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거주지역의 확산으로 인한 학령아동의 감소는 민족교육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많은 조선족학교들이 학생수의 감소로 통합되었거나 또는 폐교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학령아동인구의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났으나 점차 도시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길시의 한 소학교는 1990년대 초반에 학생수가 2,700여명이었으나 신입생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 현재 1,489명에 불과하다. 용정시의 한 중학교는 1970년대 중반까지 재학생이 400명이 넘는 규모의 학교이었으나 2003년 현재는 39명에 불과하다.

<표 9>는 연변지역의 조선족 소학교와 학생수의 최근 변화추세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2000년 현재 연변의 조선족 소학교와 민족연합 소학교를 합한 수는

〈표 9〉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소학교 및 조선족 소학생수의 변화추세, 1996-2000

	1996	1997	1998	1999	2000
학교수					
조선족 소학교	130	129	121	96	92
민족연합 소학교*	126	103	108	99	91
학생수					
재학생수	91,048	79,147	79,170	63,622	52,354
신입생수	11,418	10,014	8,076	6,819	5,155

주: * 민족(조선족)반을 설치한 민족연합 소학교를 의미함.
 자료: 오금숙(2001: 15).

183이었으며, 조선족 소학생수는 52,354명이었다. 이는 1996년의 256개 학교와 91,048명의 학생수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소학교 신입생의 규모도 2000년은 1996년의 45.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조선족학교와 학생수의 감소 현상은 길림성의 여타 지역이나 요령성, 흑룡강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그리고 조선족의 출산력 감소와 이동성향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조선족 소학교와 학생수의 감소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조선족의 민족교육이 지니는 단점도 있다. 시장경제의 도입 이후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선족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조선족 마을에서 자라고 조선족학교에서 교육받은 조선족의 상당 부분은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이들이 조선족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간직해온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주류사회로 편입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은 승진과 출세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한족학교로 가는 조선족학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조선족인구의 거주지 확산으로 한족 문화와의 본격적인 접촉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회활동이나 신분상승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선족학교보다 한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조선족학교의 폐

7)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도문시, 용정시 등에서는 반대로 일부 한족들이 조선족학교를 선호하는 경향도 관찰된다.

교사태로 인하여 먼 거리의 조선족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학비 이외에도 기숙사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중퇴시키거나 가까운 한족학교로 보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연변자치주 교육위원회의 1987년 자료에 의하면 연변의 조선족 소학생과 중학생의 3.4%와 7.6%가 한족학교에 다녔다.⁸⁾ 이 비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각각 11.2%와 9.6%에 이르렀다. 즉 한족학교로 가는 조선족학생의 증가추세는 중학생보다는 소학생의 경우에, 그리고 한족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돈화시와 안도현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선족의 구성비율이 높은 연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길시 소재 한족 소학교와 초중에서 공부하는 조선족학생이 1998년에 1,891명, 그리고 1991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강영덕, 2001).

조선족학교들의 폐교와 기피현상은 조선족 교원의 대량 이직과 실업, 그리고 교육의 질의 전반적인 하락을 초래하였다. 연변에서 1991-2000년의 기간에 조선족 소학교와 중학교를 떠난 교원은 4,200명으로 교원 총수의 53.1%에 해당된다. 연변의 조선족 중학생과 고중생의 평균성적과 합격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한족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2001년에는 길림성 전체의 평균 수준보다 낮아졌으며, 연변의 한족학생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변일보, 2002).

결국 조선어의 유용성 감소와 민족교육의 붕괴는 조선족사회의 통합과 민족정체성을 크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증가추세를 보이는 조선족 여성과 한족 남성간의 혼인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결과, 중국 내 소수민족사회로서의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자치주기관의 직무를 수행할 때 조선어와 한어를 같이 통용하도록 하는 자치조례를 2003년에 발표하였다(연변일보, 2003). 그리고 조선어와 한어의 이중언어 교육과 함께 낙후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조선족학교 개혁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 가족의 이산과 해체

연변의 조선족사회에서는 1970년대 등소평(鄧小平)이 내건 개혁개방정책 이후,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이산가족이 속출하고 가정이 해체

8) 참고로 문화혁명의 마지막 해였던 1976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12.5%와 25.0%로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강영덕, 2001).

되고 있다. 새로운 직업과 일거리를 찾아 베이징 등 중국 내 대도시로 진출하거나 “드림 코리아”의 희망을 안은 한국행이 줄을 이었다. 그 와중에서 연변을 비롯하여 동북 3성의 조선족공동체는 급속히 해체되어 갔다 (권태환·박광성, 2003b). 실제로 조선족 농촌의 산개(散個)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다. 화룡시 화남촌은 300호가 넘었으나 한국 바람이 불면서 절반이 떠났고, 젊은 여자는 남아있지 않다. 한국에 취업하러 떠나는 조선족은 기술인력에 국한되지 않았다. 농민과 가정주부는 물론, 교사나 공무원처럼 중요 기관이나 조직에서 종사하는 고급 인력도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노동이동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속출, 부부의 장기적인 별거는 가정파괴와 이혼율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부모 혹은 한쪽 부모 없이 생활하여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일탈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이호영 외, 1994; 손태균, 2001). 용정과 도문시의 조선족 소학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출국한 가정의 학생이 전체 학생의 41.4%와 63.8%에 달했다(양옥금, 2001). 연길시의 한 소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71.4%가 부모가 한국으로 갔거나 이혼한 가정의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선일보, 2001). 또한, 조선족학생의 중학교 중퇴율이 20%에 달하고 중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71%로 하락하였다(예문연변통신, 2003). 결국, 한국 바람으로 조선족 가정이 빠르게 해체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연변지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정체된 사회였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연변의 조선족사회는 중국의 어느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예를 들어, 2001년 연변 출신 조선족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송금해온 외화 수입이 연간 3억 달러(3,9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연변자치정부의 재정수입 17억 위안(2,700억원)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다(한겨레신문, 2002). 개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돈을 포함하면 그 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표 10>에는 연변자치주 15세 이상 인구의 민족 및 성별 혼인상태의 구성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의외인 것은, 비록 그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으나 조선족의 미혼자 구성비율이 남녀 인구 모두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조선족 젊은 여성들의 혼인이동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표 10>에서는 감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남자 인구의 미혼자 구성비율이 여자 인구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한족의 경우에도 점차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0>은 지난 10년간 조선족 가족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조선족은 이혼자의 구성비율이 남녀 각각 3.8%와 3.0%로 1990년

〈표 10〉 연변조선족자치주 15세 이상 인구의 민족 및 성별 혼인상태의 구성비율, 1990-2000

	조선족				한족			
	1990		2000		1990		2000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혼인상태								
미혼	25.9	17.0	25.6	16.3	27.8	21.4	21.5	14.9
초혼유배우	71.4	70.0	65.2	65.0	68.0	71.9	70.8	74.0
재혼유배우			3.7	3.8			3.0	3.2
이혼	1.2	1.0	3.8	3.0	1.0	0.7	2.3	1.5
사별	1.5	12.0	1.7	11.9	3.2	6.1	2.4	6.4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1991: 168-169; 2002: 1322-1357).

에 비해 높아졌다. 그리고 2000년 현재 재혼한 유배우자의 구성비율이 한족의 그것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남자 인구의 경우, 1990년에는 초혼과 재혼을 합한 유배우자 구성비율이 조선족이 한족보다 높았으나, 2000년에는 반대로 한족의 유배우자 구성비율이 조선족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자 인구는 남자 인구에 비해 사별자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남자보다 사망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별 이후 재혼하는 확률도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표 10>에서 조선족 여자의 사별자 구성비율은 남자의 그것보다 7-8배 높은 수준이다. 한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향이 관찰되나, 남녀간 사별자 구성비율의 격차는 2-3배에 불과하다. 또한, 남자의 사별자 구성비율은 한족이 조선족보다 약간 높고, 반대로 여자의 경우에는 조선족이 한족보다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높다. 이러한 경향들은 중년 이후 조선족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뚜렷이 높고, 남녀 인구간의 사망력 격차가 한족의 경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이동성향과 직업구성의 변화

중국에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중국 내 조선

족은 이동성향이 급격히 강해지고 거주지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농촌에서 중국과 한국의 주요 도시로의 대규모 이동, 조선족 여성의 혼인 이주, 한족의 조선족 집거지로의 유입 등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조선족공동체의 해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족의 이동은 크게 노동이동과 혼인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 노동이동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지닌다. 우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에서 도시에 인접한 농촌으로, 도시에 인접한 농촌에서는 인접 도시로, 그리고 중소 도시에서는 중국의 주요 대도시나 한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990-2000년의 기간에 조선족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길림성(연변 포함), 흑룡강성, 내몽고의 조선족인구는 감소하였으나 인근 하북(河北)지역을 포함한 북경(北京)-천진(天津) 대도시권, 위해(威海)와 청도(靑島)를 포함하는 산둥(山東)의 연해지역, 상해(上海) 대도시권, 그리고 심천(深圳) 등 광둥(廣東) 지역의 조선족인구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북경으로 1990년에 비해 1.3만 명이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한국기업의 진출에 따라 도시로의 이동이 급속히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國家統計局, 2000a, 2000b; 國務院人口普查辦公室, 2002). 아울러 한국 이외에도 사이판, 일본, 러시아 등으로의 해외진출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혼인이동은 조선족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룬다. 한국 통계청(2002)의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1992-2001년의 기간 동안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의 혼인은 47,564건이 신고 되었으며, 이들 중국 여성의 절대다수가 연변을 포함한 길림성, 요령성 및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조선족 여성들의 혼인이동은 그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조선족의 혼인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고 조선족인구의 출산력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로, 1990년 센서스에서 연변의 조선족 20-29세 여자인구는 82,455명으로 집계되었으나, 2000년 센서스에서는 48,465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중국 전체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구성비율은 2000년 현재 전체 조선족인구의 45.8%를 차지하고, 진과 현 인구가 54.2%를 구성하여, 아직도 농촌 인구가 절반이 넘는다. 그러나 노동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집단의 46%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60세 이상 노인의 74.8%는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선족 농촌공동체도 고령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인구의 성, 연령 및 지역별 거주분포, 2000

	시	진	현	총계
남자				
0-19세	50.7	20.3	28.9	100.0
20-39세	49.5	19.9	30.6	100.0
40-59세	45.6	21.4	33.0	100.0
60세 이상	44.1	21.9	34.0	100.0
여자				100.0
0-19세	52.0	19.9	28.1	100.0
20-39세	54.4	19.5	26.1	100.0
40-59세	46.9	21.4	31.7	100.0
60세 이상	43.6	22.9	33.6	100.0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2002: 348-372).

<표 11>은 연변지역 조선족인구의 지역별 거주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를 보면, 0-19세 연령집단은 남녀 모두 과반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진 지역 거주인구의 구성비율이 가장 낮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시 거주자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진과 현 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대체로 높아진다. 단, 남녀 모두 20-39세의 연령집단에서 진 지역 거주자의 구성비율이 예외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여자 20-39세 연령집단의 현 지역 거주자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이는 결국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도시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족의 이동과 거주지 확산은 직업별 구성비율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표 12>에서 2000년 연변 조선족의 직업구성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1차 산업 종사자가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족에 비해서는 1차 산업 종사자의 구성비율이 약간씩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족은 1차 산업 다음으로는 무역요식업 종사자와 체육, 교육문화, 사회복지무업 등에 종사하는 화이트 칼라의 순서로 구성비율이 높다. 이들 직업군은 한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구성비율이 높은 편이다. 흥미로운 것은 또한 국가기관, 정당 및 사회단체 종사자의 구성비율도 조선족이 한족보다 오히려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연변지역이 조선족자치주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연변조선족자치주 인구의 민족 및 성별 직업의 구성비율, 1990-2000

직업	조선족				한족			
	1990		2000		1990		2000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농림목어광업	44.2	48.0	47.7	46.3	41.9	43.7	51.5	50.4
제조생산업	24.3	23.5	12.5	9.9	32.6	32.1	13.9	15.5
건축, 지질조사, 수리관리업	3.0	0.9	3.2	0.6	5.0	2.2	5.6	1.2
교통운수통신업	5.0	1.8	4.6	1.9	5.5	2.1	6.4	2.4
무역요식업	7.4	11.8	9.0	20.3	5.6	9.0	7.9	14.5
금융보험업	1.2	1.3	1.5	2.1	0.5	0.6	0.9	1.5
체육, 교육문화, 사회복지업	8.2	10.4	13.5	15.4	4.8	8.6	9.1	12.0
과학기술연구개발업	0.4	0.2	0.4	0.2	0.1	0.0	0.1	0.1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6.2	2.1	7.0	3.1	4.0	1.6	4.2	2.1
기타	0.0	0.0	0.5	0.3	0.0	0.0	0.4	0.3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 (1991: 136-139; 2002: 1157-1234).

조선족의 직업구성은 1990-2000년의 기간에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우선 제조생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남자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23.5%에서 9.9%로 격감하였다. 제조생산업 종사자의 감소추세는 한족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교류가 늘어나면서 연변지역이 제조업보다는 소비지향적인 경제구조로 바뀌어 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⁹⁾ 그리고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무역요식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여자의 구성비율이 11.8%에서 20.3%로 늘어났다. 아울러 체육, 교육문화 및 사회복지업 종사자의 구성비율도 남녀 모두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조선족 남자의 경우에는 농림목어광업 종사자의 구성비율 역시 높아졌는데, 이는 농업 이외의 1차 산업 종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9) 연길시는 중국 1위 기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택시가 3,000여대로 상해(上海)나 심천(深圳)보다 많고, 인구규모에 비해 다방, 술집, 음식점이 가장 많다. 또한 1인당 술 소비량도 중국에서 최고로 많다.

V. 맺는 말

일반적으로 인구센서스는 한 나라나 특정 지역의 인구규모, 구조, 분포 및 성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중국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조선족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우선 센서스 보고서에서 조선족에 관련되는 자료는 민족자료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기 때문에, 조선족의 인구행태와 그 변화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를 얻을 수 없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인구센서스 원자료의 제공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인구센서스 원자료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중국 소수민족의 인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인구통계 자료들이 단편적, 비체계적이거나 자료의 신뢰도가 낮다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중국 내 조선족인구의 최근 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연구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한중 국교수립 이후 연변 조선족사회의 사회인구학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과 2000년 중국인구센서스 중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우선적인 의의를 둘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제4차 중국인구센서스 보고서(3권)와 아울러 50% 표본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최근에 그 결과가 공표된 2000년 제5차 중국인구센서스의 경우에는 아직 원자료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길림성에서 발간한 4권의 보고서와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발간한 8권의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최근의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그 함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통계국에서 작성되는 각종 통계자료, 현지의 문헌과 분석자료, 그리고 현지조사자료가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 년간 중국 내 조선족이 보인 사회인구학적 행태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중국에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고 한국과 중국간의 접촉 및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조선족사회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1990년과 2000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변의 조선족사회는 최근 절대인구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연변의 조선족인구는 2000년에 80.1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990년보다 2.2만 명이 감소한 수준이다. 따라서 연변 지역의 전체인구에서 조선족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율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력 수준의 급격한 저하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10대 초반부터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현재 1세 조선족인구는 3,38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5세 인구 14,880명의 22.7%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변 조선족인구의 또 다른 특징은 연령구조가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구의 연령구조를 기초로 계산된 각종 고령화 관련지표들을 비교해보면, 1990년 연변 조선족인구와 한국인구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0년에 이르면 연변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조가 각종 고령화 지표에서 한국인구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조선족인구의 고령화추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인구보다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조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000년 중국인구센서스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성비, 연령비, 마이어즈 지수와 연령-성 정확도 지수, 생산을 등을 활용한 분석 결과, 불규칙한 양상의 연령구조가 연령보고의 오류나 측정의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조선족인구의 비정상적인 연령구조는 오히려 조선족의 출산력, 인구이동, 혼인과 같은 인구행태가 중국의 각종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소수민족으로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해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연변의 조선족사회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관찰되어온 바와 같은 수준의 낮은 출산력과 절대인구규모의 감소, 고령화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활발한 인구이동과 통혼권의 확대, 거주지역의 확산, 그리고 이에 따른 직업구성의 변화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선족학교를 통한 민족교육의 위축으로 조선족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문화정체성도 점차 약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연변지역에서 조선족사회의 위상 약화와 아울러 조선족자치주로서의 사회인구학적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0년경에는 연변 조선족인구의 구성비율이 25% 이하로 낮아지고, 자치주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¹⁰⁾

그러나 연변지역에 대한 이러한 전망이 중국 내 모든 조선족공동체의 해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이르러 일부 도시 또는 도시 인근 지역에 조선족 집중촌(집단지주 마을)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요령성

10) 중국은 소수민족자치구역을 설정할 때 소수민족인구의 구성비율이 25%가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심양(沈陽)의 서탑(西塔), 고려타운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조선족 원주민, 귀국 노무자, 서어비스업 종사자, 지식인, 한국인들이 이런 도시형 집중촌에 몰려 있다. 또한 북경, 상해, 청도 등 중국 연안도시에도 한국기업과 연계된 조선족이 거주하는 집중촌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들 집중촌들은 다양한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 또는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반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어 주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도시 근교에 자리 잡은 농촌 마을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농경지를 임업, 과수원, 양식장이나 2, 3차 산업기지로 바꾸고, 아파트 단지, 문화 및 오락 구역, 공원과 민속촌 등을 조성하여 집중촌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다.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연변지역에서는 용정시에 인접한 조양촌도 해체위기를 돌파하는 조선족 집중촌의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참고문헌

- 강영덕 (2001), “민족교육문제와 민족교육발전사상 - 연변조선족교육을 중심으로,” 전태균 편, 《중국 조선족사회와 청소년문제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 고승제 (1973), 《한국이민사 연구》, 장문각.
- 권태환 (2003), “조선족 인구의 추세: 인구보사 자료의 분석,” 권태환·박명규·김귀옥 편,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재외동포재단 지원연구보고서.
- 권태환·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개정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태환·박광성 (2003a), “교육과 조선족 사회의 위기,” 권태환·박명규·김귀옥 편,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재외동포재단 지원연구보고서.
- _____ (2003b), “가족의 분산과 해체,” 권태환·박명규·김귀옥 편,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재외동포재단 지원연구보고서.
- 김두섭 (1996), “중국 조선족의 저출산력: 한족과의 비교,” 《한국인구학》 19(1): 45-72.
- _____ (2000), “성선후에 따른 유아의 성별 차별사망력: 중국의 조선족, 한족과 다이족의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3(2): 143-166.

- _____ (2001), “북한인구의 성 및 연령구조에 대한 재검토: 1994 인구센서스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4(2): 117-147.
- 양옥금 (2001), “조선족의 사회문제: 인구감소 현황과 그 과제,” 이화여자 생활과학연구소 편, 《한민족 공동체 시각에서 본 연변조선족의 현실》, 이화여자 대학교.
- 연변일보 (2002), “조선족 교원대오가 흔들리고 있다,” 연변일보 2002년 9월 25일.
- _____ (2003), “조선족 간부들은 조선말과 조선신문을,” 연변일보 2003년 3월 28일.
- 예문연변통신 (2003), “격동기의 중국조선족 - 간부와 교육문제 2,” 예문연변통신 2003년 5월 4일, <http://yanbian.yemoon.net/>.
- 오금숙 (2001), “중국조선족교육사업이 직면한 위기와 그 해결방도,” 전태균 편, 《중국 조선족사회와 청소년문제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 윤진주·량학민 (2001), “연변조선족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전태균 편, 《중국 조선족사회와 청소년문제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 윤 호 (1993), “중국 조선족의 인구동향,” 《한국인구학회지》 16(1): 19-36.
- 이호영·신승철·이동근 (1994), 《연변조선족 사회정신의학 연구》, 토담.
- 조선일보 (2001), “‘코리안 드림’ 10년...이혼, 이농, 이산가정 속출,” 조선일보 2001년 12월 17일.
- 통계청 (2002), 《2001년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_____ (2003),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KOSIS), 통계청, <http://kosis.nso.go.kr/>.
- 한겨레신문 (2002), “연변 해외노무자 지난 해 3억 달러 송금,” 한겨레신문 2002년 1월 26일.
- 한상복·권태환 (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흑룡강신문 (2001), “연변조선족 고혈압발병률 전국 첫 자리,” 흑룡강신문 2001년 12월 18일.
- 國家統計局(編) (2000a), 《中國統計年監 2000》,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_____ (2000b), 《中國人口統計年監 2000》,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國務院人口普查辦公室 (2002), 《中國 第五次人口普查資料匯編》, 上, 中, 下冊,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國家統計局.

- 吉林省 人口普查辦公室 (1990), 《中國 人口普查資料 (50% 標本資料 컴퓨터 테이프)》, 吉林省 人口普查辦公室.
- _____ (2002), 《吉林省 2000年 人口普查資料》, 1-4冊,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延邊人口普查辦公室 (1991), 《延邊朝鮮族自治州 第四次人口普查資料匯編》, 上冊, 延吉: 延邊朝鮮族自治州 人口普查辦公室.
- _____ (2002), 《延邊朝鮮族自治州 第五次人口普查資料匯編》, 1-8冊, 延吉: 延邊朝鮮族自治州 人口普查辦公室.
- 延邊統計局 (2002), 《延邊統計年鑒 2002》,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 全泰均 (編) (2001), 《中國朝鮮族社會与青少年問題研究》,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 崔昌來·朱成華·金維民 (1992), 《延邊人口研究》,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 崔昌來·陳通河·朱成華 (1989), “延邊人口与計劃生育簡論,” 隋喜林 外編, 《發展中的延邊》,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 Anderson, B.A., Doo-Sub Kim, and J.H. Romani (1997), "Health Personnel, Son Preference, and Infant Mortality in China," *Population Studies Center Research Report No. 97-401*,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 Anderson, B.A. and Jinyun Liu (1996), "Son Preference and Excess Female Infant Mortality among Koreans and Non-Koreans in Yanbian Prefecture, Jilin Province, China, with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in Doo-Sub Kim and B.A. Anderson (eds.), *Population Process and Dynamics: For Koreans in Korea and China*, Hanyang University Press, 189-243.
- Davis, K. (1963), "The Theory of Change and Response in Modern Demographic History," *Population Index* 29: 345-366.
- Friedlander, D. (1969), "Demographic Responses and Population Change," *Demography* 6: 359-381.
- Han, Jing-Qing, Lee-Jay Cho, Minja Choe, and Chi-Hsien Tuan (1988), "The Fertility of Korean Minority Women in China: 1950-1985,"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3(1).
- Jiang, Zhenghua, Shuzhuo Li, and Fubin Sun (1994), "An Estimation of the Completeness of Death Reporting and Mortality Analysis in China's 1990 Census," *1990 Population Census of China: Proceedings of*

- International Seminar*, Beijing: China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728-738.
- Johansson, Sten and Ola Nygren (1991), "Missing Girls of China: A New Demographic Accoun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7 (1/March): 35-51.
- Kim, Doo-Sub (1997), "Son Preference of Koreans and th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Sex Ratio at Birth: Evidence from Korea and Jilin Province, China," in Doo-Sub Kim and B.A. Anderson (eds.), *Population Process and Dynamics: For Koreans in Korea and China*, Hanyang University Press, 3-34.
- _____ (1998), "Korean Emigration to Manchuria and Japan and the Repatriation Movements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Studies* 17: 441-470.
- Mosher, W.D. (1980), "The Theory of Change and Response: An Application to Puerto Rico, 1940 to 1970," *Population Studies* 34: 45-58.
- Shen, Yimin and Chengzhu Tong (1997), "A Study on High Mortality of Korean Males in Jilin Province, China during Middle and Old Age," in Doo-Sub Kim and B.A. Anderson (eds.), *Population Process and Dynamics: For Koreans in Korea and China*, Hanyang University Press, 169-186.
- Shryock, H.S., J.S. Siegel, and Associates (1976),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Condensed edition by E.G. Stockwell, New York: Academic Press.
- Tu, Ping and Zhiwu Liang (1994), "An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Enumeration of Infant Deaths and Births in China's 1990 Census," *1990 Population Census of China: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eminar*, Beijing: China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281-288.